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복지 데스크

## 중증장애인들의 꿈이 영글어 가는 ‘아람터’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인 학생 때리고 목 졸라”  
인권위, 관련 정책 마련 권고

보성군, 지난해부터 민·관·상 협력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모델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견학 1번지’ 자리매김... 서로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 발전

“다 큰놈이 밖에도 안 나가고 방구석에만 있으니 내가 저놈 견사하느라고 일도 못하고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지 앞가림만이라도 해야 하는데, 맨날 사고나 치고, 장애인 없었으면 집에서 내쫓았을 거요 어디 보낼 시설 없소?”



보성군 관내 중증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업훈련이나 취업은 꿈도 꿀 수 없고, 집에 방치되거나 도시의 시설로 입소를 해야 했다.

이런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성군은 2018년부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아람터’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 2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면장갑 임가공과 생산 그리고 다양한 임가공사업을 월 천오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성군과 아람터, 보성글러브(대표 박재원)는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면장갑 오바로크, 면장갑 포장, 면장갑 생산 등의 기술지원과 후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서로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는 복지과 상공, 민·관·상의 상생협력의 좋은 표본이 되어 전남의 타 시군에서 연 4회 이상 찾고, 외국 바이어들도 5회 이상 찾는 장애인복지시설 견학 1번지가 되고 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전문 기

계를 능숙하게 다루는데 놀라고, 아람터에서 만든 면장갑이 전량 수출되는데 놀라며, 활기차게 일하는 장애인들의 분위기에 또 놀란다고 한다.

2020년에는 30명의 중증장애인과 함께 연 2억8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람터 직원들의 꿈은 지금처럼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신나게 일하는 것이다.

물론 이용 장애인 모두가 한 가지 이상 취미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해 전문 직업인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커나가도록 훈련도 열심히 할 것이다.

2019년 아람터에 야외 쉼터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지원한 보성군은 2020년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8명의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더 쾌적한 환경조성과 적정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람터 이용자에게 삼촌이라 불리우는 보성글러브(주) 박재원 대표도 “아람터와 보성글러브는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며 면장갑 직조 기술 전수와 원자재 구매, 그리고 생산품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보성=안규일 기자

## ‘제3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성료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서 약 350여명 참석... “인식개선 노력”

전남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총 18개 기관, 전남도 내 17개 장애인복지관,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자기주장대회에서는 전남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대근(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송성미(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2인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17명의 발달장애인

이 ‘나의 100세 시대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조모임’, ‘기초수급제도를 바꿔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연설과 노래로 표현하여 대회 슬로건인 ‘배우GO, 외치GO, 펼치GO’에 걸맞는 당사자들의 꿈과 소망을 펼치는 장이 되었다.

또한, 자기주장대회를 빛내기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준비한 댄스, 수어공연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자들의 장구, 통기타 등



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자기주장대회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발달장애인과 만나서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통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그리고, 전남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 김중민 관장은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번 자기주장대회는 경쟁이 아닌 자기주장을 통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A학교는 C군뿐 아니라 다른 발달장애인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이 드러났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끌고 교실로 데려가기도 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매뉴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